

‘심청·춘향’ 전통 판소리 주인공, 현대 직업인 재탄생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천변만화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

패션비즈니스 대표가 된 심청, 일타강사로 일하는 심학규, 춘향의 직업은 연예기획사 대표이며 무대에서는 전자음악과 버무린 판소리가 흘러나온다.

창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의 쇼케이스 현장이다.

광주시립창극단이 킬러콘텐츠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무대는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연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본 공연을 앞둔 단원들의 현란한 몸짓과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 판소리의 단골 소재 주인공들을 현대로 소환시켜 그에 맞는 직업과 새로운 삶을 부여했으며 음악 역시 케이팝과

2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서 관객과 소통하는 ‘마당창극’ 장르 케이팝·트로트·EDM 결합 차별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신 시도”

트로트, EDM 등 전통 판소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성이었다.

제목 ‘열어볼 결심’은 선물을 열어보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과 희망을 전하는 뜻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마당창극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마당창극은 1970~1980년대 형성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마당놀이’를 새로 명명한 것이다. 무대 출연진들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연적인 공연으로 전통 창극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광주시립창극



지난 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연실에서 열린 특별기획공연 천변만화(千變萬化)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광주시립창극단 단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단만의 독창성과 차별화된 강점을 극대화해 펼쳐낼 전망이다.

지난 36년간 다양한 전통문화예술공연을 선보여 온 광주시립창극단은 이번 무대를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로 도약에 나선다. 이같은 변화에 대한 시동으로 마당창극을 선택했다는 점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작진에는 총감독 박승희, 연출 오진욱, 극본·작사 임영욱, 작곡 홍정의, 작창 신유진, 안무 배승현, 의상 박지우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에 있어 신선하고 파격적인 새로운 창극 장르로의

도전이다. 대본의 현대성 및 창극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성, 심도 있는 연극적 연기 역량을 바탕으로 한 극적 해석과 역동적인 안무는 현대 창극의 다양한 표현 영역과 자율성을 선사한다. 판소리 선율을 바탕으로 한국음악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관객들에게는 광주시립창극단 단원들의 변화무쌍한 예술적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대중화 속에서 세계화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며 나온 결과물이다. 광주시립창극단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판소리 다섯바탕의 서사를 통해 주인공들에 인간 내적 욕망과 캐릭터들의 자유분방함을 보여 주는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오동섭 화백이 전하는 ‘무등산 호랑이 숨결’

27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인간-자연-동물’ 공존 염원 호랑이 작품 포함 총 100여점

원로 호랑이 작가로 알려진 오동섭 화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광주대학교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선보이는 오동섭 기획 초대전 ‘무등산 호랑이 숨결’ 전시다.

오 화백은 국내 몇 안 되는 원로 호랑이 작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번 전시는 그가 과거 무등산을 포효하던 호랑이 기록을 찾으며, ‘무등산 호랑이 이야기’를 아카이브 자산으로 남기는 작품 10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호랑이는 그림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민간신앙, 인생 가치관, 생활 이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매개 동물이다.

야생동물 모니터링 카메라 시각으로 그린 연속 스틸 화면의 호랑이 작품 56점을 포함해 무등산에 서식하는 희귀 동물 담비, 오색 딱따구리, 후투티, 홍여새 등도 이미지화해 작품에 녹여 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무등산의 자



오동섭 작 ‘폭설속으로의 질주’.

광주대 제공

연과 동물을 보전하고, 인간과 공존하며 상생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염원했다.

최준호 광주대 호심미술관장은 “오 화백은 근자에 보기 드문 공력 작가다. 머지않아 작가가 그린 ‘무등산 K-호랑이’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운상원기념관,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17일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전시 해설·체험 부스·공연 진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상원기념관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개관 후 첫 체험형 시민 참여 행사인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킨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장은 운상원기념관과 운상원 열사의 생가가 있는 천동마을 추모광장에 조성되며, 전시 해설, 체험 부스,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바다 유리 방향제 만들

기 △초콜릿 꽃다발 만들기 △평화의 열쇠고리 만들기 △천동견문록 미션북 △1980-2025 시민의 합성 체험 △오월 버블쇼 등으로 구성됐다.

운상원기념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5·18 교육과 체험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산마을지원네트워크가 참여해 ‘5·18기념식’과 ‘5·18 광산길 걷기’, ‘주먹밥 나눔’ 등의 체험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

미래에 펼쳐질 우주세상 그리다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17~18일 국립광주과학관 8개 마당·63종 프로그램 체험·공연·이벤트 등 다채

발명의 날(5월19일)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 일원에서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이 오는 17~18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우주세상’을 주제로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우주과학마당, 창의발명마당, 미래상상마당, 기초과학마당, 과학나눔마당 등 총 8개 마당 63종의 체험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행사 기간 상설전시관(본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을 무료로 개관한다.

행사 첫날인 17일 오전 10시 시민과 함께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우주과학마당에서는 우주탐사선, 우주로켓, 관성로켓 낙하산, 우주식량 등 다양한 우주과학기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창의발명마당에서는 무게중심 미끄럼틀, 피칭머신, 오르니콥터, 울림통 악기 등 과학기술 융합, 발명 교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이 이달 17~18일 국립광주과학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현장.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육 체험이 가능하다.

미래상상마당에서는 내가 만드는 인공지능(AI) 자동차 탐험대, 레고로 떠나는 화성 무인 탐사 활동, 드론 활용 우주탐사 등 첨단 과학기술 체험을 통해 배워볼 수 있으며, 기초과학마당에서는 신비로운 뇌 구조 마스크, 병뚜껑 진동 로봇, 바다 유리 키링, 정전기로 움직이는 미니 로켓 등 기초과학 원리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나눔마당에서는 이동식 과학차량(광주식약청)에서 ‘튼튼 먹거리 탐험대’도 운영한다.

특별한 공연 프로그램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17일 오후 1시 본관 중앙홀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과학관 음악회’, 오후 2시에는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진행되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이 열리며

18일 오후 2시에는 ‘온가족 뮤지컬 갈라쇼’가 개최된다.

이 밖에도 행사 안내 페이지를 사전에 공유하는 ‘사전 소문내기 이벤트’, 체험에 참여하고 기념품도 받는 ‘부스 체험 참여자 기념품’, 스티커 5개 이상을 받은 참여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스티커 미션 이벤트’, 양일 각각 스티커 5개 이상을 모두 받은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발명메니아 이벤트’ 등이 운영된다.

이번 페스티벌의 야외부스 체험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선착순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